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연보라·이승진·장희원)

1

雇傭職業能力開發研究
第18卷(2). 2015. 8, pp. 1~24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연 보 라* · 이 승 진** · 장 희 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된 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2011)자료를 활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서울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 첫 직장의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으며, 기업체 규모 및 임금, 비정규직 여부 등을 노동시장 성과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선택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향점수 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여 대학 입학 이전의 유사한 특성을 지닌 서울/비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과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출신대학 소재지는 첫 직장의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들에 비하여 기업체 규모 및 임금에서 더 좋은 노동시장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의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개인의 배경이나 대학 입학 이전 특성, 대학 위세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녔을지라도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대학 소재지, 노동시장 성과 격차, 경향점수매칭(PSM)

투고일: 2014년 10월 29일, 심사일: 11월 2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4월 29일

* 고려대학교 박사수료(ybora0326@hanmail.net)

** 고려대학교 석사수료(supermarket35@hotmail.com)

*** 고려대학교 석박통합과정(chouette91@gmail.com)

I. 서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고용의 불완전성이 증대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청년 고용률은 39.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통계청, 2014).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학 진학률은 80%를 상회하였고, 노동시장에서 대학 졸업자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단지 '대학을 졸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느 대학을 졸업'했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의 대학서열체제는 교육 및 사회체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안나, 2003; 김진영, 2007), 대학 소재지에 따른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서울 또는 서울근접지역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이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현상이 뚜렷하며, 이 같은 대학입시에서의 조기선별은 노동시장의 선별로까지 이어진다. 한편 취업 이후에도 지방대 졸업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방대 졸업자는 수도권 소재 대졸자와 개인적 특성이 유사함에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바울·김성환, 2003; 류장수, 2005). 대학 소재지에 따른 이러한 노동시장 성과 격차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자기계발 의욕과 희망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국 고등교육의 60% 이상이 지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큰 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오호영, 2007).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김희삼, 2010; 류장수, 2003; 박상우·김성환, 2004; 이병식, 2004; 이상호, 2012; 채창균, 2005; 황남희·정주연, 2011). 그러나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전술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는 대학 진입 이전의 개인의 인적 속성의 차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의 인적 속성을 통제함에 있어 방법론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대학서열화가 계속되어온 바, 학생들의 제반 특성은 대학 소재지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다분하다. 가령 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상대적으

로 좋은 가정배경을 지녔거나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서울 및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분석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이하, NURI사업)을 비롯하여 최근 지방인재유대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기에는 대다수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전술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택편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향점수매칭방법을 통해 대학 입학 전 인구학적 특성이나 가정배경, 학업능력을 기늬할 수 있는 진학 대학의 위세 등 개인의 인적 속성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임금, 사업체 규모, 고용의 질 등을 고루 살펴봄으로써 다각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한 일련의 선행연구(김희삼, 2010; 박환보, 2012; 황여정·백병부, 2008)들에서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갖는 프리미엄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 비교뿐 아니라 서울과 비서울지역 대학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 소재지와 대학 서열

한국사회의 대학 서열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서열은 자구적인 노력에 의한 내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한국사회에서의 대학서열은 소재지나 설립형태, 시기 등의 외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이 같은 서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박지은, 2008), 고착화된 서열체계는 교육 및 사회체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안나, 2003; 김진영,

2007; 이두휴·고형일, 2003).

대학의 서열체계에서 특히 대학 소재지는 서열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구조적으로 정치·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의 입지를 고려할 때 이는 예상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리하여 최근 한국의 입시경쟁을 서울 소재의 대학에 가기 위한 소위 '인서울(서울 소재) 대학 가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서열체계의 상부에 위치한 수도권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는 반면 지방대학에 대한 경쟁은 약화되고, 학생모집 위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소재지에 따른 대학의 서열은 학생들의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선호 현상으로 이어진다. 대학의 서열은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높은 서열의 대학을 사회적 상승이동의 통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황갑진, 2006). 그리하여 중등교육단계부터 수도권 대학을 향한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며(이두휴·고형일, 2003), 고등교육에 진입한 이후에도 편입 등의 경로를 통해 상당수의 지방대학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오영재, 200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 소재의 대학은 자연스레 대학서열체계의 상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서울 또는 서울과 근접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김안나(2003)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현상은 계속 유지되어온 한편 서울 외 지역에서 신입생의 수능성적은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서울지역으로의 우수학생 집중현상이 심화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학진학이 학업성적에 의해 결정되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서울과 가까운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서울 소재 대학 진학에는 교육성취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정배경이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김위정·김양분, 2013). 일군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의 서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김미란, 2004). 이와 관련하여 김성식(2008)은 학교수준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 가능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고등학교의 소재지 또한 향후 진입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방하남·김기현(2002)에 따르면 대도시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위세가 높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위세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을 진학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전술한 서울 소재 대학 선호 경향은 전공계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대학뿐만 아니라 전공에서도 서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김진영, 2007). 김진영(2007)은 의예과와 경영학과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면서 해당 학과의 대학 서열이 자주 변동되고 있으며, 서열의 편차도 감소하여 대학 간 차이가 무의미해질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 교대나 의대, 과학기술대의 경우 자격증 취득이나 전공의 특성 등을 이유로 해당 분야에서 대학서열체제와는 무관한 입지를 가지기도 한다.

2. 대학 소재지와 노동시장 성과

최근 여러 연구자들이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격차를 고찰해왔다. 일련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출신대학 소재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학 소재지를 나누어 살펴본 반면(류장수, 2003; 박상우·김성환, 2004; 이병식, 2004; 채창균, 2005), 최근에는 서울 소재 여부를 주요 변수로 주목한 연구들도 수행되는 추세이다(김희삼, 2010; 박환보, 2012; 황남희·정주연, 2011; 황여정·백병부, 2008). 이는 서울 소재 대학 입학자의 수능성적이 비서울지역 대학 입학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김안나, 2003; 안기돈·오정일, 2010) 대학 졸업 이후의 삶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시장 성과로서 다수의 연구들은 임금, 사업체 규모,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고용의 질, 직무만족도, 직무-전공 일치도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임금은 대표적인 기준으로 간주된다.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임금 격차를 분석한 연구들은 서울권(또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졸업생이 비서울권(또는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박상우·김성환, 2004; 채구묵, 2007; 홍성우, 2012). 가령 남기곤(2012)은 고등학교 소재지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서울 소재 대학 및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고,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가 지방대 출신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

을 확인하였다. 대학 입학 단계에서 유사한 능력을 갖춘 학생일지라도 대학 소재지에 따라 임금 수준에서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 소재지에 따른 이러한 임금 격차는 상당 부분 대학 입학 당시의 수능시험 점수와도 관계가 있다. 오호영(2007)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금 격차를 살펴보았는데,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능점수를 통제한 이후 대학소재지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대학 소재지에 따른 임금 격차는 상당부분 수능점수와 같은 개인의 능력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능점수를 통제한 후에도 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희삼, 2010). 이 같은 결과는 유사한 수능점수를 받은 학생일지라도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에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대졸자가 취업한 사업체의 규모 및 취업형태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또는 기업체)의 규모 및 취업형태는 임금 및 복리후생뿐 아니라 사업장의 안정성 및 사회적인 평판 등을 반영하는 질적인 지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라 대졸자가 입사한 사업체의 규모 및 취업형태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류장수(2003, 2005)는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들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체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희삼(2010) 역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들이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생들과 비교하여 더 큰 사업체에 취업할 승산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수능점수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황여정·백병부(2008)는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할 확률이 비서울권 대학 출신자보다 2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계형·김경근(2008)은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가 지방대학 졸업자에 비해 미취업 대비 취업에서 갖는 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는 지방대학 졸업자에 비해 미취업 대비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노동시장 성과로는 취업여부, 직업지위, 첫 일자리 취득 소요기간, 교육수준 및 전공-직무 일치도, 직종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일수록 미취업할 가능성이 높고(채구묵, 2007; 채창균, 2005; 채창균·김태기, 2009)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었다(류장수, 2005). 지방대학 출신자의 직업지위는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 출신자보다 낮

을 가능성이 높으며(박환보, 2012)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었다(이병식, 2004). 대졸자의 교육수준 및 전공과의 직무일치도를 살펴본 경우 비서울권 대학 졸업생일수록 전공불일치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능점수를 통제 한 후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희삼, 2010). 반면 진선미·공정석(2011)은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교육수준과 기술수준 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전공불일치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황남희·정주연(2011)은 교육수준 불일치 현상은 대학 소재지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어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분석대상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GOMS2011)’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의 모집단은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로, GOMS2011의 모집단은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대졸자이다. GOMS2011의 조사내용으로는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성과분석, 직무불일치 분석, 인력수급모형 등 자료의 활용이 광범위하다. 또한 본 자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졸자 코호트 조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료된다.

GOMS2011에서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교육 대학에서 학과소분류별 층화추출하여 표본이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 GOMS2011의 자료에는 18,299명의 표본이 포함되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을 제외하고 4년제 대학 및 교육 대학 졸업생들 중 현재 취업 상태인 응답자를 포함하여 한번이라도 이전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¹⁾를 중

1) 본 연구에서는 출신대학 소재지가 첫 번째 일자리에서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경향점수 매칭 이후의 분석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n=1,646)과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생(n=1,646),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n=1,747)과 비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생(n=1,747)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변수설정

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은 변인들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노동시장 성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종속변수로서 기업체 및 사업체규모, 첫 직장²⁾의 시간당 임금, 고용의 질(비정규직 여부)³⁾을 고려한다. 첫 직장의 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기 위해 월급을 월 노동시간(4.3주)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편포를 고려하여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였다. 기업체 및 사업체 규모는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299명, ⑦ 300~499명, ⑧ 500~999명, ⑨ 1,000명 이상으로 측정된 변수를 그대로 투입하였다. 첫 직장에서의 종사자 지위는 더미변수로서 비정규직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통계청이 제시한 비정규직 구분 기준⁴⁾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들 가운데 기간제 고용, 일일 고용, 한시적 고용, 시간제 고용, 파견근무, 용역, 특수형태 고용, 재택근무 등의 문항을 사용하여 엄밀하게 비정규직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매칭을 위해 수도권 대학 또는 지방대학 입학 확률을 예측하는 변수들은 선

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인 응답자들과 기존에 첫 번째 직장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2) 현재 다니는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인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 3) 최근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규직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고용의 질로서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여부를 살펴보았다.
- 4) -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U 시간제근로자 U 비전형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누어짐.
 - 시간제 근로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됨.

행연구들을 토대로 성별, 가정배경,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대학 위세 등을 고려하였다. 먼저 성별은 남자를 참조변인으로 두고 여성에게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가정배경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부모학력, 대학 입학 당시의 부모소득을 고려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본래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으로 조사되었던 것을 각 학교급의 교육연한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부모의 학력 중 큰 값으로 투입하였다. 부모소득은 대학 입학 당시의 월평균 총가구소득을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699만원, ⑦ 700~999만원, ⑧ 1,000만원 이상의 범주로 투입된 것을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고등학교 소재지는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구분한 후 지방 소재 고등학교일 경우를 참조변인으로 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 교육, 자연공학, 의약, 예체능계로 구분한 후 인문사회계열을 참조변인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의 수능점수를 통제하기 위해 대학 위세 변인을 구성하였다.⁵⁾ 대학 위세는 평균 입학년도로 추정되는 2005년 당시의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활용하여 구성하였고, 대학평가 순위를 ① 1~10위, ② 11~20위, ③ 21~30위, ④ 31~40위, ⑤ 41위 이하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⁶⁾ 이에 40위권 밖 대학을 참조변인으로 각각을 더미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대학 입학 이후 최종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해외어학연수 경험 유무, 대학학점(백분율), 대학입학 후 직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았던 경험의 유무, 자격증 소지 여부, 대학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고려하였다. 해외어학연수나 자격증, 직업교육 및 훈련경험 유무는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대학진로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진로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⁷⁾에 한번이

5)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수능점수 대신에 대학의 위세 변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근자에 들어 대학 입학전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능점수로서 개인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제한이 있고, 실제로 수능점수를 사용하는 경우 대다수 결측 사례가 발생하여 표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6)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경우 신뢰성 있는 평가로 다수의 연구들에서 대학의 위세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나 전국의 100개 정도의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가에서 누락된 학교들이 존재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가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사립 입시기관에서 추정한 입학점수를 참고하여 이에 준하는 순위로 투입하였다.

7) ① 진로, 취업관련 교과목 참여 여부, ② 직장 체험 프로그램(인턴 포함) 참여 여부, ③ 인·적성검사 등 직업 심리검사 참여 여부, ④ 교내 취업 박람회 참여 여부, ⑤ 진로관련 개

라도 참여한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한편 임금 및 기업체 규모, 종사자 지위 등의 노동시장 성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첫 번째 직장의 소재지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직장 소재지는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구분한 뒤, 지방 소재지를 참조변인으로 하여 서울과 수도권 소재지를 각각의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1> 기초통계치(매칭 전)

변수명	전체	서울(=1)	비서울	서울/ 비서울	수도권 (=1)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기업체규모	5.647 (2.805)	6.436 (2.772)	5.370 (2.764)	1.066***	6.078 (2.810)	5.264 (2.746)	.813***
종속 변수							
임금	.702 (.253)	.770 (.269)	.678 (.242)	.092***	.739 (.266)	.669 (.236)	.070***
비정규직 여부	.371 (.483)	.323 (.468)	.388 (.487)	-.065***	.342 (.474)	.397 (.489)	-.055***
성별(남=0)	.445 (.497)	.499 (.500)	.426 (.494)	.073***	.466 (.499)	.426 (.495)	.040***
부모학력	13.344 (3.181)	14.338 (3.118)	12.995 (3.128)	1.343***	13.967 (3.142)	12.790 (3.112)	1.177***
대학입학 당시 부모소득	4.276 (1.708)	4.667 (1.725)	4.140 (1.681)	.527***	4.534 (1.728)	4.048 (1.657)	.486***
고교 소재지 (ref: 지방)							
독립 변수							
서울	.215 (.411)	.443 (.497)	.135 (.341)	.309***	.377 (.485)	.071 (.256)	.307***
수도권	.207 (.405)	.273 (.445)	.184 (.387)	.089***	.323 (.468)	.103 (.304)	.220***
전공계열 (ref: 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	.091 (.288)	.076 (.265)	.097 (.296)	-.021***	.071 (.258)	.109 (.312)	-.038***
자연공학계열	.369 (.483)	.351 (.477)	.375 (.484)	-.025*	.368 (.482)	.370 (.483)	-.002
의약계열	.045 (.208)	.029 (.167)	.051 (.220)	-.023***	.039 (.193)	.051 (.221)	-.013***
예체능계열	.098 (.297)	.094 (.291)	.099 (.299)	-.005	.096 (.295)	.099 (.298)	-.002

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여부, ⑥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참여 여부, ⑦ 취업캠프 참여 여부

변수명	전체	서울(=1)	비서울	서울/ 비서울	수도권 (=1)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대학 위세 (ref: 40위권 밖)							
대학 위세10	.144 (.351)	.427 (.495)	.044 (.205)	.383***	.288 (.453)	.015 (.122)	.273***
대학 위세20	.143 (.350)	.104 (.306)	.157 (.363)	-.052***	.168 (.374)	.120 (.325)	.048***
대학 위세30	.104 (.306)	.116 (.320)	.100 (.300)	.016*	.080 (.271)	.126 (.332)	-.047***
대학 위세40	.089 (.284)	.083 (.276)	.090 (.287)	-.007	.083 (.276)	.094 (.291)	-.011*
대학학점 백분율	81.638 (8.625)	80.827 (8.234)	81.924 (8.742)	-1.097***	80.989 (8.414)	82.216 (8.770)	-1.227***
독립 변수 해외연수경험	.236 (.424)	.291 (.455)	.216 (.411)	.076***	.274 (.446)	.202 (.401)	.072***
직업교육 훈련경험	.191 (.393)	.208 (.406)	.184 (.388)	.023**	.201 (.401)	.181 (.385)	.020**
자격증 취득유무	.698 (.459)	.632 (.482)	.721 (.448)	-.089***	.658 (.474)	.734 (.442)	-.075***
대학진로지원 프로그램참여	.746 (.436)	.758 (.428)	.741 (.438)	.017	.760 (.427)	.733 (.443)	.027**
직장 소재지 (ref: 지방)							
서울	0.384 (0.486)	0.722 (0.448)	0.265 (0.441)	0.458***	0.597 (0.490)	0.193 (0.395)	0.404
수도권	0.194 (0.395)	0.199 (0.399)	0.192 (0.394)	0.007***	0.277 (0.447)	0.120 (0.325)	0.156***

* p<.05, ** p<.01, *** p<.001

전술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칭 이전의 표본에서 투입된 대다수의 변인들이 출신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별, 부모학력, 대학입학 당시 부모소득, 고교 소재지, 전공계열, 대학 위세, 직장 소재지에서 서울/비서울 소재 대학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대학들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전술한 결과는 대학 입학 이전에 대학 소재지에 대한 선택편의가 존재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향점수 매칭방법(P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사용하였다. 경향점수 매칭 방법은 관측값에 기초하여 처치집단에 포함될 확률로 경향점수를 구하고, 경향점수가 같거나 유사한 사례들을 매칭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한 후에 처치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Guo and Fraser, 2010). 가령 서울(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을 처치집단(treatment)으로 분류하고, 서울(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구함으로써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동일인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관찰 가능한 개인 특성 변수를 통해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고 이와 같거나 비슷한 사례(통제집단)를 추출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처치집단을 서울 소재 대학 졸업(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통제집단을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또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경향점수는 학생의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x 를 조건으로 하는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을 나타낸다(Rosenbaum and Rubin, 1983).

$$\text{Logit}(P_i) = \ln\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본 연구에서 x_i 는 개인의 성별, 가정배경, 출신고등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대학 위세⁸⁾ 등이다. 경향점수 매칭에서는 caliper match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비복원추출을 통해 매칭 사례를 추출하였다. 매칭 이후의 분석에서는 먼저 기업체 규모와 임금에 대한 분석에서는 OLS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 비정규직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종속변인이 이분형 변수임을 고려하여 프로빗(probit)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은 대학 소재지만 투입(모형 I)하여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뒤, 대학 입학 이전 관련 변인⁹⁾들을 함께 투입하고(모형 II),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 이

8) 본 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지의 선택에 있어서 대학 입학 이전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한편 취업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 학점과 교육·훈련, 대학진로지원프로그램, 자격증, 해외연수 등의 경우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상 대학 소재지 선택 이후의 변인으로서 역의 인과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학 입학 이후 취업준비와 관련한 변인들은 최종 분석 모형에서만 투입되었다.

후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¹⁰⁾들을 순차적으로 투입(모형Ⅲ)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지가 연구대상의 배경변인이나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 계열, 대학 위세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경향점수매칭(PSM) 방법을 사용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졸자를 매칭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성과로는 기업체 규모, 임금(시간당 임금), 고용의 질(비정규직 여부)을 각각 살펴 보았으며, 분석은 대학 소재지(모형 I), 배경 변인 및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 계열, 대학 위세(모형Ⅱ)를 차례로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 후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학 학점, 해외연수, 대학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여부, 교육·훈련 여부, 직장소재지 등의 변인(모형Ⅲ)을 투입하였다.

먼저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향점수 매칭 후 분석 표본(n=1646)에서는 개인의 배경 변인,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 계열, 대학 위세 등의 변인에서 대학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매칭 이후 대학 소재지에 따른 분포를 확인한 것으로 구성된 데이터의 변인들에서 균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소재지에 따라 혹시라도 있을 분포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Kolmogorov-Smirnov(KS) Test'를 수행한 결과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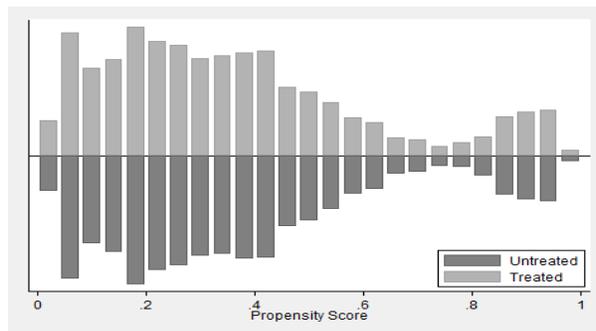
9) 개인 배경 및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 계열, 대학 위세

10) 대학 학점, 해외연수, 대학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여부, 교육·훈련 여부, 직장 소재지

<표 2> 기초통계치(매칭 후)_서울/비서울

변수명	서울(=1)	비서울	서울/비서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성별(남=0)	.513 (.500)	.488 (.500)	.025
부모학력	13.957 (3.119)	13.896 (2.962)	.061
대학입학 당시 부모소득	4.491 (1.751)	4.564 (1.711)	-.073
고교 소재지 (ref: 지방)			
서울	.380 (.485)	.391 (.488)	-.012
수도권	.304 (.460)	.306 (.461)	-.001
전공계열 (ref: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	.093 (.290)	.090 (.286)	.003
자연공학계열	.365 (.482)	.361 (.480)	.004
의약계열	.036 (.186)	.026 (.160)	.010
예체능계열	.108 (.310)	.114 (.317)	-.006
대학 위세 (ref: 40위권 밖)			
대학 위세10	.197 (.398)	.187 (.390)	.010
대학 위세20	.174 (.379)	.184 (.388)	-.010
대학 위세30	.093 (.290)	.100 (.300)	-.007
대학 위세40	.086 (.281)	.077 (.267)	.009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매칭 이후 경향점수 분포_서울/비서울

매칭 이후의 분석결과(표 3)를 살펴보면, 서울 소재 대학 여부 변인만 포함한 모형 I 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이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생들에 비하여 취업한 기업의 규모가 더 크며,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별, 가

정배경,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대학 위세, 대학 학점, 해외연수,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대학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대학 입학 전과 이후로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Ⅱ, Ⅲ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지속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고용의 질(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대학 소재지 변인만 포함한 모형Ⅰ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모형Ⅱ에서는 부적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학 입학 전과 이후로 모든 변인들을 통제한 모형Ⅲ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고용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기업체 규모		임금		비정규직 여부	
	b	se	b	se	b	se
I. 서울 소재 대학 여부 only	0.571***	(0.097)	0.063***	(0.009)	-0.074	(0.046)
Ⅱ. + 대학 입학 이전 관련 변인	0.575***	(0.090)	0.064***	(0.008)	-0.083*	(0.046)
Ⅲ. + 대학 입학 이후 관련 변인	0.584***	(0.089)	0.063***	(0.008)	-0.075	(0.047)

* p<.05, ** p<.01, *** p<.001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기업체 규모와 임금에서 프리미엄을 갖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학 입학 이전과 이후의 관련 변인들을 모두 통제된 상황에서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생에 비하여 기업체 규모에서 0.584 정도 단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 역시 0.063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비정규직 여부는 분석 방법(매칭 여부)이나 어떠한 변인들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학 입학 이전 및 입학 이후의 관련 변인들을 통제한 뒤에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이 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앞선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경향점수매칭(PSM)방법을 사용하여 유사한 특성을 지닌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을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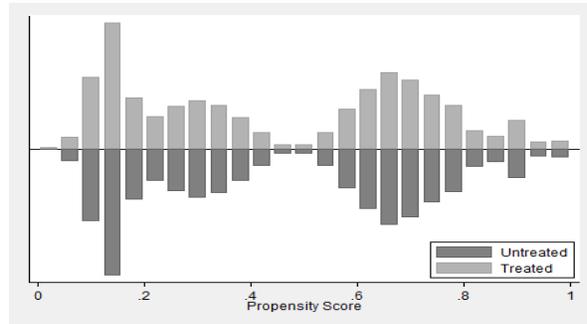
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매칭 이후의 분석 표본(n=1,747)에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 여부에 따라 배경변인,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 계열, 대학 위세 등의 변인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칭 이후의 두 집단 간의 분포를 확인한 [그림 2]에서도 구성된 변인들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 소재지에 따라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Kolmogorov-Smirnov(KS) Test'를 수행한 결과 유의미한 분포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기초통계치(매칭 후)_수도권/비수도권

변수명	수도권(=1)	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차
성별(남=0)	.432 (.496)	.418 (.493)	.014
부모학력	13.287 (3.011)	13.352 (2.920)	-.065
대학입학 당시 부모소득	4.263 (1.651)	4.278 (1.621)	-.014
고교 소재지 (ref: 지방)			
서울	.190 (.392)	.201 (.401)	-.011
수도권	.264 (.441)	.254 (.435)	.011
전공계열 (ref: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	.074 (.263)	.080 (.271)	-.005
자연공학계열	.397 (.489)	.400 (.490)	-.003
의약계열	.037 (.189)	.035 (.185)	.002
예체능계열	.101 (.302)	.101 (.301)	.001
대학 위세 (ref: 40위권 밖)			
대학 위세10	.040 (.196)	.039 (.195)	.001
대학 위세20	.184 (.387)	.184 (.388)	-.001
대학 위세30	.074 (.262)	.075 (.263)	-.001
대학 위세40	.102 (.303)	.102 (.303)	.000

* p<.05, ** p<.01, *** p<.001



[그림 2] 매칭 이후 경향점수 분포_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매칭 이후의 관련 변인들을 차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여부가 기업체 규모와 시간당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보다 기업체 규모와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먼저 대학 소재지 변인만 포함한 모형 I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은 기업체 규모와 임금에 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배경변인 및 고등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대학 위세, 대학 학점, 해외연수,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대학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 II, 모형 III에서도 여전히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여부는 비정규직 여부에 부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한 모형 II, III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은 기업체 규모와 임금에서 프리미엄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학 입학 이전과 이후의 관련 변인들을 모두 통제된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에 비하여 기업체 규모에서 0.389 정도의 단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로그 시간당 임금 역시 0.045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이 고용의 질(비정규직 여부)에는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기업체 규모		임금		비정규직 여부	
	b	se	b	se	b	se
I. 수도권 소재 대학 여부 only	0.373***	(0.094)	0.043***	(0.008)	-0.043	(0.044)
II. + 대학 입학 이전 관련 변인	0.382***	(0.089)	0.045***	(0.008)	-0.047	(0.044)
III. + 대학 입학 이후 관련 변인	0.389***	(0.088)	0.045***	(0.008)	-0.045	(0.045)

* p<.05, ** p<.01, *** p<.001

V. 요약 및 결론

최근 청년 실업자 수는 46만 명으로, 2010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한파 이후 청년층 실업률이 다시 8%대로 높아진 가운데(통계청, 2014) 노동시장에서의 지방대 졸업생들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운 모습이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수많은 지방대학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동시에 졸업 이후 극심한 취업난과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은 지방대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서열화에 따른 학별은 노동시장에서 주요한 신호(signal)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기피 현상은 이들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이르게 되었다(정태화,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NURI사업 등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왔으며,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 지방대생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술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최근에 발표된 GOMS2011자료를 활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택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향점수매칭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노동시장 성과로서 기업체 규모 및 임금, 고용의 질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고, 이어 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비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자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들에 비하여 노동시장에서 대체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업체 규모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이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생들에 비하여 더 큰 규모의 기업체에 진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보다 큰 기업체에 진입하였으며,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출신대학 소재지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서울 소재 대졸자와 수도권 소재 대졸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기업체 규모 및 임금에서 프리미엄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학 소재지가 첫 직장의 노동시장 성과에 주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배경이나 대학 입학 이전 특성, 대학 위세 등 유사한 특성을 지닌 사람이라도 여전히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노동시장 진입에서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갖는 불리함은 구조적인 차이로서 입직단계에서의 선별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인적자원 개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대생들의 일차적인 고민은 대학서열화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편견과 차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대학 입학 이전에 유사한 특성을 지닐지라도 지방대학이라는 출신이 이들에게 불리한 신호(signal)로서 작용하여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영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방대학의 낮은 교육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실 있는 교육과 인재육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힘쓰고 있는 지방대학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최근 지방대학의 역량강화와 노동시장에서 지방대생을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차이가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적 대응의 모색과 함께 지방대 졸업생들을 우대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을 경감하려는 노력들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서류전형에서의 학력 입력란 삭제와 같은 열린 채용 정책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지방대학의 낮은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시장 내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여 지방대학 출신 청년들의 의욕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구직자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채용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학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인적자원개발의 성과를 높이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향점수매칭방법은 대학 입학단계에서 선택편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관측되지 않는 변인에 따른 오차(bias)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대상의 대다수는 노동시장 입직 초기의 신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포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장기간 축적된 자료를 사용하여 포괄적인 시각에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미란(2004). 「교육기회의 메리트크라시 구조—대학 유형과 서열별 진학기회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제20집, 1~21쪽,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성식(2008). 「학생 배경에 따른 대학진학 기회의 차이: 성별, 가정배경, 지역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9권 제2호, 27~47쪽,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김안나(2003). 「대학입학 수능 성적 분포의 변화추이를 통해 본 고등교육의 서열화 구조」,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3호, 89~108쪽,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위정·김양분(2013).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누적적 매개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제47권 제4호, 263~302쪽, 한국사회학회.
- 김진영(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3호, 1~72쪽, 한국금융연구원.
- 김희삼(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제32권 제2호, 55~92쪽, 한국개발연구원.
- 남기곤(2012). 「“대학진학은 서울로”, 합리적인 선택인가?: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경제발전연구』, 제18권 제1호, 81~114쪽, 한국경제발전학회.
- 류장수(2003).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6권 제1호, 1~25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2호, 1~27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박상우·김성환(2004). 「노동시장의 이행실태와 인력정책 방향」, 『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55~81쪽, 한국경제통상학회.
- 박지은(2008). 「대학서열 변동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논총』, 제15권, 179~191쪽,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36권 제4호, 193~222쪽, 한국사회학회.
- 박환보(2012). 「고등교육 보편화 이후 대졸자의 취업 격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기돈·오정일(2010). 「고등학생의 대학교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1호, 199~210쪽, 서울연구원.
- 오영재(2005).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1호, 327~356쪽, 한국교육행정학회.
- 오호영(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논집』, 제30권 제2호, 87~118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계형·김경근(2008). 「대졸자의 첫 일자리 취업형태 결정요인」, 『한국교육학연구』, 제14권 제3호, 87~111쪽, 한국교육학회.
- 이두휴·고형일(2003). 「대학서열체계의 공고화와 지역간 불균등발전」,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1호, 191~214쪽, 한국교육사회학회.
- 이병식(2004). 「청년실업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 『도시문제』, 제39권 제423호, 56~65쪽,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이상호(2012). 「공간적 요인이 청년 대졸자의 하향취업에 미치는 효과」, 『공간과 사회』, 제40권, 38~77쪽, 한국공간환경학회.
- 정태화(2004). 「학벌주의: 쟁점과 개선 대책에 관한 논의」,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7권 제2호, 93~129쪽, 한국성인교육학회.
- 진선미·공정석(2011). 「대졸자의 하향취업이 노동시장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1호, 95~120쪽,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4호, 35~61쪽, 한국사회복지학회.
- 채창균(2005).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청년층 취업률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2호, 93~117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채창균·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28권 제2호, 89~107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최바울·김성환(2003).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성과 분석: 수도권 vs 지방대학」,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1~26쪽, 한국고용정보원.
- 통계청(2014). 201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_____ (2015).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에서
2015.1.20 인출.
- 홍성우(2012). 『지방대학 여대생의 노동시장 이행과정 분석』, 『지역사회연구』, 제20권 제1호, 55~69쪽, 한국지역사회학회.
- 황갑진(2006). 『교육현상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가정환경의 영향』, 『사회과교육 연구』, 제13권 제3호, 69~92쪽,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황남희·정주연(2011). 『대졸청년층의 하향취업: 연령집단 및 하향취업 측정방법에 따른 비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2호, 271~292쪽,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황여정·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2호, 1~23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Guo, S. & Fraser, M. W.(2010). *Propensity score analysis: Statistical methods and applications*, CA.: Sage Publication.
- Rosenbaum, R. & Rubin, D.(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Vol.70 No.1, pp. 41~55.

Abstract

The effects of location of one's affiliated university on
labor market outcomes of a first job

Youn Bo Ra
Lee Seung Jin
Jang Hee Won

Using a sample from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2011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location of former college on labor market outcomes.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was examined depending on whether or not former college from which one is graduated is located in Seoul or in capital areas. To this end, this study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to minimize selection bias, and thereby analyzed students with similar attributes prior to the entrance of universities.

The results reveal that graduates from universities in Seoul, as well as those from universities located in the capital area, exhibit better labor market performance in terms of wage level or size of the companie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y that it is highly likely for graduates from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or in capital areas to get the windward of the labor market outcomes.

Key words: Location of University, Difference of Labor Market Outcomes,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